



전남대학교 시스템 보안연구센터 시스템 보안의 코어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보안, DB 보안, PC 보안 등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보안연구는 정보보호의 핵심요소다. 때문에 이 분야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는 시스템 보안분야에서 약 10년간 수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은, 국내 시스템 보안의 핵심 연구기관이다.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국내 정보보호 문제점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수도권의 집중화가 그것이다. 국내 산업기술과 서비스가 그러하듯, 정보보호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기업이라고 해서 IT 기술이나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없진 않을 텐데도 말이다.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는 비수도권 정보보호 연구센터 중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그 성과 또한 높이 평가받는 대표적인 곳.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기술분야에서 ITRC로 선정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꾸준히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적어도 전남대학교 연구센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산학협력 기술연구소의 산실

타 ITRC 지정 연구센터가 그러하듯, 이곳 시스템보안연구센터 역시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원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총 8개 대학 9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몇 년전 정보보호 기술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됐던 Tolerance, 즉 침입감내 시스템을 비롯해 침입대응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등 시스템 보안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및 보안제품을 상용화해 왔다. 특히, 보안운영체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이들의 시스템 보안연구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보호 시스템의 핵심 분야인 시스템 보안의 원천기술을 개발, 상용화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체의 산학협력 기술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죠.”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를 진두지휘하는 노봉남 교수의 말이다.

리눅스 전문가들

사실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 오픈소스 특히, 리눅스 시스템은 해외에서 이미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가진 보안의 문제점들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즉, 오픈소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안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는 정보보호기술, 한국리눅스센터, 시큐브, 윈스테크넷 등 국내 주요 정보보호 전문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보안운영체제, 통합보안관리, DB보안 게이트웨이 분야에서 지난 4년간 11건의 기술이전과 7건의 기술 상용화를 이뤄냈다. 여기에 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158건의 SCI급 논문과 150건의 국제논문 발표는 치열한 연구과정에서 이뤄낸 부산물이다.

연구인력, 연구센터의 가장 큰 힘

대부분의 연구소가 그러하겠지만 시스템보안연구센터 역시 연구인력이 가장 큰 자산이다. “저희 연구센터에 합류한 연구인력은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전문성, 신뢰성, 협동성을 고루 갖추으로써 산업체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구인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 저희 연구센터의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죠” 라고 노 교수는 현재의 연구센터를 있게 한 우수한 연구원들의 노력을 빼놓지 않는다.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를 거쳐간 전문인력들은 정보보호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CMU Cylab, 피츠버그 대학, North Carolina 대학 등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도 참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중일 OSS(공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포럼에서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가 개발한 SEEN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보안운영체제가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돼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도 노 교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정보보호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 협동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품제(三品制)’를 도입해 센터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요” 라는 노 교수는 우수인력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학연 네트워크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실력있는 연구진,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가 우리나라를 지식정보보안산업 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S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 노봉남 교수 ▲